

라틴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양보 접속사구 *todavía que*의 특성

곽재용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지역인 안데스와 리버플레이트 지역에서 양보 접속사구로 기능하는 [*todavía que*]에 대한 형태-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Real Academia Española(2009)에 따르면 부사 *todavía*는 초점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며 특히 안데스와 리버플레이트 지역에서는 [*todavía que*]가 양보구문을 형성하며 첨가적 해석을 갖는다고 한다. 케추아어의 접미사 ‘-raq’과 아이마라어의 접미사 ‘-raki’는 스페인어의 부사 *todavía*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두 원주민 언어에서는 상기의 접미사가 첨가 초점사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스페인어에서는 첨가 초점사로 쓰이는 접미사는 없으므로 이러한 범주적 불일치로 인해 [*todavía que*]구조에서는 *todavía*가 부사의 형태로 접속사 *que*와 함께 첨가 초점사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형태-통사적 그리고 의미적 특성은 두 원주민어들과 스페인어의 언어접촉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기초하여 스페인어의 부사 *todavía*가 어원적으로 전칭양화사와 관련되는 사실과 척도와 관련된 자질을 내포하는 특성에 기인하여 [*todavía que*]는 척도 첨가의 의미를 갖는 양보의 접속사로 기능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주제어 : 척도 첨가 초점사, 전칭양화사, 양보구문, 접미사

I.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스페인어에서 양보구문을 이끄는 연결어는 Gómez Torrego (2007: 358-359)가 제시하는 것처럼 접속사인 *aunque*, 접속사의 성격을 갖는 부사 *así*, 접속사구(locuciones conjuntivas)로 분류할 수 있는 *si bien*, *por más que*, *y eso que*, *bien que*, *aun cuando* 등과 더불어 전치사구로 구분될 수 있는 *a pesar de*, *pese a* 및 관계사 구조인 *por ... que*, *conque* 등과 같은 요소들로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표현들처럼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양보성을 갖는 접속사나 접속사구가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안데스 일부와 리버플레이트 지역에서 [*todavía que*]가 양보의 접속사구로 사용하는 용례를 살펴보고 이 [*todavía que*]가 이끄는 절이 어떻게 라틴아메리카의 일부지역에서 양보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비록 이 [*todavía que*]가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지역인 안데스와 리버플레이트 지역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양보의 접속사구이지만 이를 단순히 지역적 특수성만으로 간주되는 표현이 아니라 스페인어의 어휘 *todavía*가 갖는 고유 의미적, 형태-통사적 특성과 라틴아메리카 안데스 일부 지역에서 보여주는 이중 언어의 특성에서 비롯된 양보의 접속사구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구조를 기존의 양보의 접속사구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고자 한다.

II. [*todavía que*]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

1.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접속사 *aunque*의 특성과 관련된 [*todavía que*]

Flamenco García(1999: 3809)는 양보구조와 반의구조는 의미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상호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기술한다. 가령 ‘*Aunque Pepe estuvo muy enfermo, fue a trabajar.*’와 같은 문장은 ‘*Pepe estuvo muy*

enfermo, pero fue a trabajar.’로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양보구조와 반의 구조에 대한 특성은 문장의 구조뿐만 아니라 맥락과도 함께 고려해야함을 강조한다. 실제로 이러한 *aunque*의 특성에 대해 RAE(2014)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unque.

De *aun que.*

1. conj. conc. Introduce en la prótasis un impedimento que resulta ineficaz para evitar lo que expresa la apódosis. *Aunque estoy malo, no faltaré a la cita. Aunque severo, es justo.*
2. conj. adverb. pero (|| para contraponer un concepto a otro). *Tengo ya tres mil libros, aunque querría tener más. Creo que ha llegado, aunque no lo sé con certeza.*

RAE(2014)는 위의 설명처럼 접속사 *aunque*는 양보의 접속사 기능과 반의의 접속사 기능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다. RAE(2014)는 접속사 *aunque*가 어원적으로 *aun que*라는 형태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요소인 *aun*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한다.

aun.

Del lat. *adhuc.*

Escr. con acento en aceps. 1-3.

1. adv. todavía (|| hasta un momento determinado). *Aún estás a tiempo.*
 2. adv. todavía (|| no obstante, sin embargo). *Era quien más espacio tenía y aún protestó.*
 3. adv. todavía (|| denota encarecimiento o ponderación). *Alcanzó más prestigio aún que su padre. Sus palabras introdujeron aún más confusión.*
 4. adv. Hasta o incluso. *Te daré 100 dólares, y aun 200, si los necesitas. Aun estando casados, dormían en habitaciones separadas.*
 5. adv. siquiera (|| tan solo). *No tengo yo tanto, ni aun la mitad.*
- aun cuando.*

1. loc. conjunt. conc. *aunque.* *No renunciará a su patrimonio aun*

cuando tenga que luchar por él en los tribunales.

RAE(2014)에 따르면 *aun*은 라틴어의 *adhuc*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적시하고, 현대 스페인어에서는 강세를 갖는 *aún*은 위의 1~3의 정의처럼 *todavía*의 의미를 가지며 강세가 없는 *aun*은 위의 4~5의 정의처럼 *hasta*나 *incluso* 그리고 *siquiera*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기술한다.¹⁾ 아울러 *aun*이 접속사인 *cuando*와 함께 사용되는 [*aun cuando*]는 양보의 접속사구로 기능하며 *aunque*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기술한다. 그런데 접속사 *cuando*는 RAE(2014)도 언급하듯이 *aun*과 같은 요소가 함께 사용되지 않아도 양보의 용법뿐만 아니라 조건과 원인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로도 사용이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conj. En caso de que o si. Cuando es irrealizable un intento, ¿por qué insistir en ello?
- conj. A pesar de que o aunque. Se ponen ustedes a elucubrar, cuando lo importante ahora es ser eficaces y resolutivos. Era usado también seguido de subj.
- conj. Puesto que o porque. Cuando tú lo dices, será verdad.

RAE(2014)의 기술내용에 비추어보면 접속사 *cuando*는 홀로 양보의 접속사로 기능할 수도 있지만 *aun*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보의 접속사로 기능한다는 점을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unque*와 *aun cuando*의 비교에서 우리는 전자는 형태적으로 단일형 단어로 오늘날 양보의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후자는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양보의 의미를 갖는 하나의 접속사구로 사용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 이는 RAE(2010)의 정서법 규정에서도 언급하듯이 *aún*은 모음 충돌회피(hiato)[*a.un*]가 일어나며 *aun*은 이중모음(diptongo)[*aun*]으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aún*은 부사 *todavía*와 대체가 가능한 요소임을 언급하며 시제나 강조의 의미(valor temporal o ponderativo)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aun*은 첨가/포함의 의미(valor inclusivo)를 가지며 *incluso*나 *hasta*로 대체되는 경우나 양보의 의미를 가져서 *aunque*나 *a pesar de*와 호환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접속사구 *aun cuando*에서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RAE(2014)의 기술내용에 기초해보면 *aún*의 동의어가 *todavía* 이므로 현대 스페인어의 *aunque*는 외견상 [*aun + que*]의 조합보다 오히려 [*aún + que*]와 더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RAE(1973)의 *aún*과 *aun*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Se distinguen por el acento de intensidad el adverbio de tiempo aún y la partícula aun. Pero esta partícula vacila algunas veces entre acentuación e inacentuación, especialmente cuando va seguida de no, con la significación de ni siquiera: Aun en la tórrida zona / no estará seguro de mí (Lope de Vega, Barlaán y Josafat, v. 1587).

RAE(1973: 72)

aun, partícula inacentuada, procedente del adverbio aún. Es siempre monosilábica y se coloca siempre delante de la palabra o de la frase de que depende. Unas veces significa ‘hasta’, ‘incluso’: Que aun /aun/ el cielo, en algún modo / es de disfraces (sic.) capaz (Lope de Vega, El castigo sin venganza, I, en Obras sueltas, VIII, pág. 386). Otras veces tiene significación adversativa o hipotética (de donde las conjunciones compuestas, también inacentuadas, aunque y aun cuando): Pero, aun /aun/ fusilando a Rosas, la campaña no habría carecido de representantes (Sarmiento, Facundo, cap. IX).

RAE(1973: 100)

RAE(1973: 72, 100)는 *aún*과 *aun*의 강세의 표시 차이에 입각하여, 전자는 부사인 반면 후자는 첨사(partícula)로 명백히 구분하고, 첨사인 *aun*은 부사인 *aún*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만약 *aún*이 자신의 범주적 특성인 부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접속사인 *que*와 함께 사용되었다면 [*aún que*]로의 실현이 오늘날에까지도 이어졌겠지만 *aún*이 부사로써의 범주적 지위를 잃고 현대 스페인어에서 첨사로 기능하여 [*aun que*]로의 실현이 아닌 *aunque*로 실현되는 현상은 단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결과물로 여겨진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 Vio lo mal prender e nol podie prestar, Que aun que quisesse, nol podie huuiar (Alex-O, 31v) nin aun que la començassen que la non acabarien (Ultramar, 49r)

Elvira(2007: 122)

예문 (1)은 1503년 작품으로 [*aun que*]의 형태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Rivarola(1976: 46)는 예전에는 [*aun que*]를 3음절로 사용하다가 2음절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를 고려해 보면, [*aun que*]가 단음절인 *aun*과 *que*가 각각 함께 사용되었다기보다는 [*aún que*], 즉 강세를 가진 2음절어인 부사 *aún*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Cuervo (1886: 779)가 스페인어의 접속사 *aunque*는 부사 *aún*의 변천과정에서 양보의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 아울러 현대 스페인어에서 부사 *aún*의 유의어가 *todavía*라는 점은 옛 표현인 [*aún que*]의 구조에 기초하여 [*todavía que*]와 같은 구조적 유추를 통한 과생성(overgeneration)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예측은 다음과 같이 안데스와 리버플레이트와 같은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todavía que*]가 양보의 접속사구로 실현됨을 발견할 수 있다.

- (2) a. *Todavía que llegas tarde, protestas.*
- b. *Todavía que te conseguí lo que me pediste, te enojás conmigo.*
- c. *Si todavía que se tienen problemas, se le suma que se abandona la tierra propia, se está agregando uno más.*

RAE(2009: 2334)

한편 부사 *todavía*와 접속사 *que*가 (2a,b,c)처럼 연속체인 [*todavía que*]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콜롬비아와 카리브지역 일부 국가에서는 (3)과 같은 문장 역시 양보성을 갖는다고 RAE(2009)는 기술한다.

- (3) *Todavía le pago el estudio y se queja.*

RAE(2009: 2334)

(2)에서는 [*todavía que*]가 외견상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구로 기능하지만 (3)의 경우는 *todavía*가 등위접속사인 *y*와 함께 등위절을 이루면서 선행절이 양보성을 갖는데 의미적으로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즉 (3)의 예문은 안데스와 리버플레이트와 같은 지역에서 (4)와 같은 구조로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4) *Todavía que le pago el estudio, se queja.*

본 연구는 (2)에서 사용되는 [*todavía que*]는 양보성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어떻게 이 연속체가 양보성을 가지는지 되는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3)과 같은 환경은 *todavía*가 형태-통사적으로 접속사와 분리되어 구현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2)에서는 접속사 *que*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절 표지자이며 (3)의 경우는 접속사 *y*는 등위절 표지자로 각각 기능하면서 양보성 구문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는 요소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양보성을 갖는 접속사 *todavía que*

Val Álvaro(1999: 4837)는 여타 로망스어처럼 스페인어도 구구조 합성과정(*proceso de composición sintagmática*)의 과정을 통하여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만든다고 기술한다. 즉 스페인어의 *porque*는 전치사와 접속사, *conque*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aunque*는 부사와 접속사, *siquiera*는 접속사와 동사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구구조 합성과정은 특정한 범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다양한 범주들이 합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Flamenco García(1999: 3841)는 초기 스페인어에서도 그러하듯이 양보 접속사의 합성은 중세 스페인어에서도 발견된다고 언급한다. Flamenco García는 접속사 *que*가 언어학적 요인이나 화용적 맥락으로 양보의 의미를 가지기도 했지만 *mal*, *encara* 또는 *aun*과 같은 강조성을 갖는 요소들이 접속사 *que*와 함께 사용되어 양보적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설명한다.

- (5) a. Ayer las hedes a servir, mal que vos pese a vós.
b. En qual quier d' estos dos casos deue dar el demandador fiador de riedra sin nenguna defension, encara que no sea dado el fiador de dreito en nengua partida del uidicio.

Flamenco García(1999: 3841)

Flamenco García(1999)는 위에서 언급한 강조성을 갖는 요소들 중 *aun*이 결국 스페인어에서 양보의 접속사를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대표적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 *aunque*의 형태가 남게 되었다고 보았다. Flamenco García도 언급하듯이 이러한 기원에 대해서는 Pottier(1968)와 Rivarola(1976: 45)의 두 이론이 존재한다. 먼저 Pottier(1968: 191)는 [*aunque*]는 《*aun más subjuntivo*》에 종속절 표지자(marca de subordinación)가 부착되었다는 주장이며 Rivarola(1976:45)의 이론은 부사 *aun*이 원래 《*que más subjuntivo*》로 이끌어지는 종속절의 앞에 사용되는 강화 표지자(encabezador reforzativo)라는 주장이다. Rivarola(1976: 46)²⁾의 언급처럼 Flamenco García(1999)도 문장의 양보적 성격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던 *aun*은 강조적 성격을 잃게 되고 접속사 *que*는 *aun*과 함께 단일형태인 *aunque*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기술한다.

Rivarola(1976: 51)는 스페인어의 *aunque*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아래의 (6)처럼 옛 아라곤어에서 *adú que*가 존재하는데 이는 스페인어 *aun*에 해당하는 라틴어의 *adhuc, adu*에 그 기원을 둔다고 한다.

2) Rivarola(1976: 46)은 13세기 후반에 이미 이러한 현상이 존재했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본 연구가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여한 것임): Con *aun* precediendo al *que* concesivo se marcaba explícitamente el carácter concesivo de la relación expresada, que ya no dependía, en consecuencia, únicamente del subjuntivo y de la estructura del contexto. Pero la conjunción surgió como tal cuando *aun* perdió su carácter redundante, es decir, cuando dejó de ser sólo un encabezador reforzativo de la subordinada introducida por *que* (+subjuntivo), pasando a formar con este *que* una unidad que podía también introducir una subordinada concesiva de carácter no-hipotético con indicativo. Ejemplos de *aunque* + indicativo se encuentran ya en los primeros decenios de la segunda mitad del s. XIII.

- (6) et si en esta guisa s'en alueina de re cebir los testigos, por fiero et por razon deuen estar recibidos los testigos adu que eil no l sia.

Rivarola(1976: 51)

Rivarola(1976: 51)는 카탈루냐어의 [*encara que*], 프랑스어의 [*encore que*], 이탈리아어의 [*ancora che*]는 모두 스페인어의 *aunque*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스페인어의 양보 접속사 *aunque*는 어원적으로 구구조의 합성과정을 거쳐 단일형 단어로 현대 스페인어에서 사용되지만 그 형성과정상 내부구조는 강조의 의미를 갖는 부사와 양보의 의미를 갖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부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는 현대 스페인어의 양보접속사 *aunque*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성을 보인다.

- (7) a. Aunque {^{*}llueve/llueva} ma ana, saldremos de excursi n.
b. Aunque {^{*}hab a/hubiera} llovido, habr amos salido de excursi n.
c. Aunque ahora {est /est } lloviendo, saldremos de excursi n.

P rez Saldanya(1999: 3300)

P rez Saldanya(1999: 3299)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양보절은 실제적 사실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는 구문과 가정적 조건을 의미하는 구문으로 나뉘며, 후자의 경우는 접속법이 그리고 전자의 경우는 직설법과 접속법이 모두 쓰인다고 설명한다. P rez Saldanya(1999)의 언급처럼 스페인어의 직설법/접속법과 관련된 의미적 특성은, 물론 여러 예외적 현상도 있지만, 위 예문들은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양보절의 직설법과 접속법의 교호 현상을 설명하는 잣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즉 (7a)는 양보절에 직설법의 사용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양보절에 시간의 부사 *ma ana*가 출현하여 미래의 맥락으로 확인되므로 비사실적 내용이어서 접속법을 사용해야 하며 (7b) 역시 비사실적 내용이므로 직설법의 사용은 불가능하게 된다. 한편 (7c)는 직설법과 접속법이 모두 가능한 문장으로 직설법인 경우 사실적 내용의 기술이며 접속법인 경우는 사실적 내용일 수도 있고 비사실적 내용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스페인어에서 양보의 접속사 *aunque*는 문장 내부에 어휘적으로 시간과 관련되는 특정 요소 - ex) *mañana, ayer* 등 - 가 출현하지 않거나 어휘 자체가 시간 혹은 상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직설법이 사용되어도 양보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는 양보성의 해석을 위하여 *aunque*가 이끄는 절이 접속법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Pérez Saldanya(1999)의 설명처럼 사실의 내용을 양보절에 기술하는 경우 직설법이 사용된다는 점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aunque*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더불어 오늘날의 용법을 대조비교해보면 결국 양보성은 접속사 *que*만으로도 가능하던 상황에서 *aun*이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그 의미가 사라짐에 따라 *aun*은 강조의 부사라는 품사적 지위를 잃게 되고 첨사로써 접속사와 합성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aunque*로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다. RAE의 설명처럼 현대 스페인어에서 *aun*은 *hasta, incluso, siquiera*를 대체할 수 있는 부사로 기능하지만, *aun cuando*에서 *aun*은 부사로서의 독립적 지위가 없이 첨사로써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³⁾

*todavía*는 현대 스페인어에서 여전히 형태-통사적으로 부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불변화사의 지위를 갖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aun*은 *aunque*의 합성과정에서 형태-통사론적으로 부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todavía*는 부사라는 형태론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양보성의 의미를 드러낸다. 아울러 중세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접속사 *que*가 종속절 표지자로 기능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앞에서 살펴본 (2)의 예문은 이러한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2) a. *Todavía que llegas tarde, protestas.*
 b. *Todavía que te conseguí lo que me pediste, te enojás conmigo.*
 c. *Si todavía que se tienen problemas, se le suma que se abandona la tierra propia, se está agregando uno más.*

3) 이는 독립적인 부사의 지위를 갖는 *aún*이 [**aún cuando*]와 같은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todavía cuando*]와 같은 구조 역시 생성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접속사 *cuando*와 관련된 내용은 본 논의의 밖으로 보고 추가적 언급은 하지 않겠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에서 양보의 접속사 *aunque*는 양보성 자질과 접속사의 자질 복합체로써 단일형 어휘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이라면 위의 (2)와 같은 예문에서 사용되는 [*todavía que*]는 *todavía*가 양보성의 자질을 가지며 접속사의 자질은 *que*로 구현되는 것으로 일종의 형태론적 분리 구현이라고 본다.⁴⁾ 즉 접속사의 자질이 종속접속사의 자질과 양보성의 자질을 함께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 [*todavía que*]로 구현이 되지만(cf. (8b)) 만약 접속사의 자질이 등위 접속사의 자질로 구현되는 경우는 (8a)와 같이 '*le pago el estudio*'과 '*se queja*'에 등위적 지위를 부여하는 구조가 도출되어야 하므로 양보성 자질을 갖는 *todavía*는 접속사 *y*와 분리되어 구현되는 것이다.

- (8) a. *Todavía le pago el estudio y se queja.* (=3))
 b. *Todavía que le pago el estudio, se queja.* (=4))
 c. **Todavía y le pago el estudio se queja.*

3. 첨가적 의미를 갖는 양보의 접속사구 *todavía que*

RAE(2009: 2334)는 (2)의 예문들에서 사용된 [*todavía que*]가 양보의 접속사로 사용되는 것이 로망스어에서 드문 현상은 아니며 카탈루냐어의 [*encara que*]를 그 예로 제시한다. 이러한 현상은 앞 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카탈루냐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에서도 해당 표현이 존재하는 것(cf. Rivarola(1976: 51))을 살펴볼 수 있었다.

RAE(2009: 1953)는 [*todavía que*]가 갖는 의미적 특성으로 [*encima de que*]의 의미로 사용되며 아래의 (9)의 예문들처럼 첨가의 의미(valor aditivo)인 *además*처럼 작용하는 경우⁵⁾ 직설법을 사용한다고 한다.⁶⁾

4) (2c)에서 [*todavía que*]는 '*se tienen problemas*'을 종속절로 이끄는 접속사로 기능하며 조건의 접속사 *si*는 '*se le suma que se abandona la tierra propia*'를 자신의 조건 부사절에 내포된 요소로 이끄는 용법으로 전자인 양보절은 후자인 조건절에 내포된 용법이며 두 접속사의 사용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5) RAE(2009: 3244)는 부사 *encima* - ex.) *encima de la mesa* - 가 장소의 의미를 잃고 '*encima de que te esperé*'와 같은 구문에서는 첨가의 의미(*además*)를 획

- (9) a. Encima de que se trata de una misión difícil, Scavino me tiene entre ojos.
- b. Lo peor de todo es que encima de que no me llaman, yo ni siquiera tengo a quién llamar.
- c. Pero Don Diego había perdido la serenidad, y la inteligencia se le extraviaba, además de que las argucias del escribano lo habían aligerado de sus mezquinos ahorros.

RAE(2009: 1953)

(9)의 예문들은 모두 첨가적 의미를 갖는 양보절을 포함한다. 즉 RAE는 (2)의 예문들이 양보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aunque*로는 대체될 수 없

득한다고 한다.

- 6) 한편 RAE(2009)는 *encima*는 부사, 그리고 *por encima*는 부사구라고 규정하고 후자의 경우는 직설법을 허용할 경우 첨가적 해석(intepretación aditiva)을 가지면서 *además de*와 등가적 의미를 가지지만, 접속법을 취할 경우 *por más que*와 등가적 의미를 가지면서 양보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 (i) a. Por encima de que tal esfuerzo produce a la sociedad un núcleo de competentes profesionales, sabido es que los excelentes revierten sobre la actividad civil.
 - b. ... por encima de que su autor lo muestre demasiado en su amor al becerro de oro.
 - c. Por encima de que objetivamente Banesto convenga a una entidad o a otra, de las tres que puján en la subasta, la batalla política ha tenido también una incidencia clara sobre el futuro del banco.

RAE(2009: 1953)

(i)의 예문들이 첨가적 의미를 가지는 특성은 첨가적 의미를 갖는 부사 *además*의 의미와 유사하기 때문이며 이는 본문에 제시된 (9)의 예문에서 종속절에 직설법을 요구하는 현상과 동일한 특성을 보여준다. RAE(2009: 2459-2461)에 따르면 *aunque*는 《adverbio + *que*》의 구조를 가지며 [*encima de que*], [*ademas de que*] 등은 《adverbio + 전치사구(grupo preposicional)》의 구조를 가지므로 접속사구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ia)의 [*por encima de que*]는 내포절에 직설법을 가지면서 (9)의 [*encima de que*]처럼 첨가적 해석을 갖지만 《adverbio + 전치사구》의 구조를 갖지는 않는다. 실제로 RAE(2014)는 *por encima*는 부사구로 *por encima de*는 전치사구로 각각 독립적인 표현으로써 기술하고 있으며 RAE(2009: 1953) 역시 이와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encima de que*]와 [*por encima de que*]는 서로 유의성이 존재하지만 구조적으로 부사 *encima*와 부사구 *por encima*의 차이는 존재하므로 본 연구는 부사구가 접속사에 선행하는 [*por encima de que*]는 논의의 밖이므로 다루지 않겠다.

지만 *además de que*, *encima de que*와 같은 표현들로 대체가 가능한 문장, 즉 첨가적 의미를 갖는 양보절을 이끄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에서 양보의 접속사 중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aunque*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그 형성과정에 참여하였던 강조의 의미의 부사 *aún*과 등가적 의미를 갖는 부사 *todavía*가 라틴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종속부사절을 이끄는 양보접속사 [*todavía que*]와 등위구조를 형성하는 [*todavía ... y ...*]에 참여하는 요소임을 살펴보았다. 다음 제 Ⅲ장에서는 부사 *todavía*가 어떻게 양보성과 더불어 첨가적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척도 첨가 초점사로 기능하는 양보의 접속사구 *todavía que*

1.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어와 스페인어의 이중 언어에서 나타나는 *todavía*의 특성

앞 Ⅱ장에서 우리는 RAE(2014)가 부사 *aún*의 동의어로 *todavía*를 기술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aún*과 관련해서 RAE(2014)는 양보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만 *aun*의 경우에는 접속사 *cuando*와 출현하는 경우 양보성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존재함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RAE(2014)는 *aun*이 아닌 *aún*의 동의어로 소개하는 *todavía*의 양보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다.

De toda y vía.

1. adv. Hasta un momento determinado desde tiempo anterior. *Está durmiendo todavía.*
2. adv. Con todo eso, no obstante, sin embargo. *Es muy ingrato, pero todavía quiero yo hacerle bien.*
3. adv. U. con sentido concesivo corrigiendo una frase anterior. *¿Para qué ahorras?; todavía si tuvieras hijos estaría justificado.*

4. adv. Denota encarecimiento o ponderación. *Juan es todavía más aplicado que su hermano.*
5. adv. desus. siempre (|| en todo tiempo).

RAE(2014)가 ‘con sentido concesivo corrigiendo una frase anterior’로 언급하는 것은 부사 *todavía*가 국면부사(adverbio de fase)의 성격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RAE(2009: 2331)는 소위 국면(fase)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El concepto de ‘fase’ -se exprese con un adverbio, como *todavía*, o con un verbo como *seguir* o *continuar*- pone de manifiesto la estrecha relación que existe, como se ha recordado, entre el tiempo y el aspecto. La noción de ‘fase’ es, en parte, temporal, en cuanto que las fases de una situación son etapas ordenadas cronológicamente. [...중략...] Pero la noción de ‘fase’ es, a la vez, aspectual, ya que para interpretarla es preciso hacer referencia a la estructura interna de los eventos y a la manera en que estos se componen.

RAE(2009: 2331)

RAE(2009: 2331)의 위와 같은 정의에 입각해 보면 국면의 부사가 양보성을 갖는 경우는 선행하는 맥락적 내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0) a. Comió tres platos y todavía pidió postre.
‘He ate three courses and still ordered a dessert’
- b. Te ayudo y todavía me reclamas.
‘I help you and still/yet/nevertheless you complain’

Erdely & Curcó(2016: 13)

Erdely & Curcó(2016: 13)는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의 맥락에서 ‘지속성’과 ‘과정’의 조합이 이루어지면 양보성의 해석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 (10)의 예문들을 제시한다. 가령 (10a)의 발화는 화자

가 누군가가 음식을 세 접시를 먹었다면 음식을 먹거나 요구하는 한계에 이를 것이므로 먹는 행위가 종결되어 더 이상 디저트를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만 (10a)는 앞 문장이 의미하는 것에 기초해 볼 때 그 기대에 어긋나는 내용이 이어지는 지속성을 기술하면서 양보성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10b)도 동일한 의미적 분석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지속성과 관련된 (10a,b)의 두 예문에서 등장하는 *todavía*는 양보성은 존재하지만 절을 이끄는 접속사구의 기능은 담당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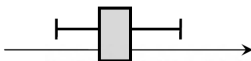
양보성을 갖더라도 연속성이라는 국면의 부사가 갖는 특성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페인어에서는 아래의 (11a)의 문장을 (11b)처럼 *seguir*동사를 사용하는 국면의 우설법(*perífrasis de fase*)⁷⁾을 사용하여 바꿔 쓰기가 가능하지만 (11a)가 안데스 시골 지역의 스페인어에서는 (11c)와 같은 해석을 갖는다고 RAE(2009)는 기술한다.

- (11) a. *Todavía es su casa.*
 b. *(Esta) sigue siendo su casa. (español general)*
 c. *Esta también es su casa. (español rural andino)*

RAE(2009: 3011)

RAE(2009: 3011)는 (11a)가 (11b)와 같은 해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일반적인 스페인어의 경우로 *todavía*가 국면의 부사로 기능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나 안데스 시골 지역에서는 (11a)가 (11c)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이유로 이 지역에서는 *todavía*가 국면의 부사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첨가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기술한다. RAE는 이 지역에서 *todavía*의 사용에 있어서 케추아어의 접미사 ‘-raq’과 아이마라어의 접미사 ‘-raki’의 의미전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7) Aparicio(2015: 10)는 《*seguir* + gerundio》를 지속의 의미를 갖는 국면 우설법이라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Perífrasis de fase continuativa expresan linealidad continuativa y se presupone un proceso o estado anterior que continúa sin llegar a su final.*



즉 문장 (11a)는 일반적인 스페인어의 경우 “여전히 그의 집이다”와 같은 시간의 지속(cf. Aparicio(2015), Erdely & Curc6(2016: 13))과 관련된 시간적 그리고 상적 해석을 갖지만 안테스 시골지역에서는 (11c)와 같이 “이 집도 그의 집이다.”라는 첨가적 의미를 갖는다고 기술한다.

Crevels & Muysken(2009: 265), Merma Molina(2008: 49), G6mez Y6nez *et al.*(2006: 94)는 케추아어의 접미사 ‘-raq’이 명사, 형용사, 대명사, 동사 또는 능동형 과거분사에 붙어서 나타난다⁸⁾고 한다.

- (12) a. qhari-raq ‘el hombre todav6a’
 b. pukata-raq ‘el rojo todav6a’
 G6mez Y6nez *et al.*(2006: 94)
- (13) a. Yo todav6a comer6. (valor de prioridad)
 (= Comer6 primero yo.)
 b. Juan hab6a sido m6dico todav6a. (valor de inclusi6n)
 (= No sab6a que Juan era incluso m6dico.)

Merma Molina(2008: 50)

Merma Molina(2008: 50)는 (13)의 예문들에서 *todav6a*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아니라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는 이유는 Cerr6n-Palomino (1996)의 접근처럼 언어 접촉 현상과 관련된 여러 현상 중 하나이며 의미-화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화용적 특성과는 별도로 관찰되는 형태-통사적 특성은 케추아어의 예문인 (12a,b)의 경우 *todav6a*에 해당하는 표현이 의존 형태소인 접미사로 실현되지만 ‘quechua-espa6ol’이나 ‘aimara-espa6ol’와 같은 이중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13a,b)의 예문에서 *todav6a*는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에 후행하는 자립형태소인 부사로 나타난다. G6mez Y6nez *et al.*(2006: 94)의 언급처럼 특정 품사에 국한되지 않고 강조를 위해 사용되는 독립적 접미사(sufijo independiente)인 ‘-raq’이 강조하는 내용에 후행하는 것처럼 이중 언어에서인 (13a,b)에서도 역시 *todav6a*는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요

8) 이러한 현상에 기초하여 Cusihum6n(1976: 255-256)는 ‘-raq’을 명세화 후접어(encl6tico de especificaci6n)로 규정한다.

소에 후행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alvo Pérez(1999: 42)는 Cerrón-Palomino(1996)의 견해를 받아들여 *todavía*를 부사로 규정하지 않고 부사적 첨사(partícula adverbial)로 규정하여 독립적으로 부사와 같은 지위가 없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

(14) *Todavía*

a. Ortodoxo: Continuativo/durativo

Valor enfanzador inclusivo/aditivo

Valor adversativo

b. Heterodoxo: prioridad

Calvo Pérez(1999: 42)

Calvo Pérez(1999: 42)의 (14)의 정의에 따르면 (13a)보다는 (13b)가 보다 훨씬 예측 가능한 의미를 갖는 용법임을 알 수 있다.⁹⁾ 특히 (14a)에서 소개하는 *todavía*의 첨가와 관련된 강조의 의미는 Lastra de Suárez(1970)가 아이마라어의 접미사 ‘-raki’를 첨가의 의미를 갖는 ‘*también*’에 해당하는 접미사 - *muna-raki-n-wa* “*también lo quería*” - 로 설명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안데스 지역의 케추아어와 아이마라어와 이중 언어로 사용되는 스페인어에서 *todavía*는 첨가적 의미를 강조하는 요소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비록 원주민어에서는 첨가의 의미를 갖는 요소로써 독립적인 부사로의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이들 접미사와 의미적 등가성을 갖는 표현은 이중 언어인 스페인어에서 *todavía*라는 부사로 대체 실현을 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즉 *todavía*는 스페인어에서 여전히 부사로의 품사적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quechua-español’이나 ‘aimara-español’와 같은 이중 언어에서는 케추아어의 접미사 ‘-raq’과 아이마라어의 접미사 ‘-raki’는 이중 언어에서 형태-통사적으로 부사의 형태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9) 즉 (13a)의 용법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본 연구의 주제와는 무관하여 다루지 않겠다.

2. 척도 첨가 초점사로 기능하는 *todavía*

앞 II장에서 본 연구는 현대 스페인어의 *aunque*는 역사적으로 부사 *aún*에 기인한 양보의 접속사임을 살펴보았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케추아어와 아이마라어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이들 언어는 부사 *aún*의 동의어에 해당하는 *todavía*는 원주민어에서 각각 접미사 ‘-raq’와 ‘-raki’에 해당하므로 이들 지역에서 사용되는 이중 언어에서 *todavía*는 형태-통사적으로 불변화사인 부사이므로 [**todavíaque*]와 같은 합성어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중세 스페인어의 형태처럼 접속사와 함께 비단일 형태로 실현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15) a. *Todavía que llegas tarde, protestas.* (=2a)
 b. *Todavía que te conseguí lo que me pediste, te enojás conmigo.*
 (=2b)
 c. *Si todavía que se tienen problemas, se le suma que se abandona la tierra propia, se está agregando uno más.* (=2c)

(13b)에서는 안데스 지역에서 첨가의 의미를 갖고 사용되는 *todavía*가 자신이 강조하는 요소에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지역 원주민어의 접미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양상으로, 원주민어에서 접미사가 수행하는 기능을 스페인어의 부사 *todavía*로 대체 실현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스페인어에서는 *todavía*가 형태-통사적으로 접미사로 기능할 수 없는 부사이므로 불변화사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15)에서는 *todavía*가 접속사 *que*에 선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페인어는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여러 요소들과 함께 접속사구를 형성하는 경우 이에 참여하는 요소는 반드시 접속사 *que*에 선행하여 나타나며 후행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주민어에서 *todavía*가 갖는 의미의 차용은 이루어졌지만 통사적 구조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페인어의 접속사구 구조를 사용한다.

앞서 우리는 안데스 지역 스페인어 (15)의 양보구문이 RAE(2009)의 언급처럼 [*todavía que*]가 [*encima de que*]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13b)의 *todavía*가 첨가의 의미를 갖는 *incluso*와 의미적 호환성이 있음을 살펴보

았다. 그러나 (15)의 예문은 [*encima de que*]로는 바꾸어 쓸 수는 있지만 [*incluso que*]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페인어에서는 (15)의 예문들이 의미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 (16) a. #*Incluso que llegas tarde, protestas.*
b. #*Incluso que te conseguí lo que me pediste, te enojás conmigo.*
c. Si #*incluso que se tienen problemas, se le suma que se abandona la tierra propia, se está agregando uno más.*

(13b)의 예문에서 사용된 *todavía*는, (11c)처럼, 단순 첨가적 의미로 해석되므로 양보성은 필요하지 않지만 (15)의 예문들은 접속사와 함께 실현되어 첨가적 의미를 갖는 양보성 구문이므로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incluso*가 사용된 (16)의 모든 예문들은 (15)과 달리 양보성이 드러나지 않는 예문들이며 (15)의 예문들과 의미적 등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RAE(2014)의 *todavía*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서 양보의 의미와 관련되어 국면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RAE(2009: 2333, 2335)는 부정극어(Término de Polaridad Negativa)의 특성과는 별도로 *todavía*가 *incluso*, *aún*과 함께 초점(foco)의 부사로 기능하며 척도 유형의 관계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한다. 이러한 용법은 양보를 표현하는 첨사와 첨가/포함을 나타내는 첨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서 드러나며, 따라서 이는 초점과 매우 큰 관련성이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다. 결국 (15)의 예문들은 양보성과 첨가의 의미를 동시에 드러낸다는 점에서 첨가적 의미만을 드러내는 *incluso*로의 대체가 이루어지는 (16)은 (15)와 동일한 맥락을 가질 수 없다. 또한 *incluso*는 일반적으로 (17a)처럼 현재분사가 출현하는 양보구문에서 양화성을 갖고 출현하거나 (17b)처럼 척도유형의 조건 양보절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 (17) a. *Incluso lloviendo a mares, todos los días salen a pasear.*
Fernandez Lagunilla(1999: 3477)
b. *Incluso si hay temporal, Antonio sale a pasear.*
Flamenco Garcia(1999: 3843)

*incluso*는 *aun*과 더불어 정도성이나 척도성을 갖기는 하지만(cf. Flamenco Garcia(1999: 3843)) 접속사 *que*를 동반하여 척도 첨가의 의미를 갖는 양 보절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todavía*가 여러 초점의 부사들 중 척도 첨가 초점사(Scalar Additive Focalizer: 향후 SAF로 표기)의 기능을 갖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¹⁰⁾

RAE(2009: 2333-2334)에서도 언급하듯이 스페인어에서 *todavía*와 *aún*이 척도와 관련된다는 점은 비교구문에서 정도와 관련된 척도의 해석에 기여한다는 경우¹¹⁾뿐만 아니라 RAE(2009: 2334)가 제시하는 다음의 예문에서도 척도와 관련된 해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18) a. Todavía pudiera disculparse a D. Enrique de haber consagrado tantas vigili-as a tan ruin asunto.
- b. Los obreros solo saben hacer huelgas y poner petardos, ¡y todavía pretenden que se les dé la razón!

RAE(2009: 2334)

RAE(2009)는 위 (18a)의 *todavía*는 *hasta*나 *incluso*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18b)는 *encima*나 *aun así*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기술한다. 이들

10) 이러한 특성은 중세 스페인어에서도 강세가 없는 *aun*이 아니라 *aún*의 경우 첨가의 의미와 척도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todavía*에 해당하는 의미는 *aún*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음은 Elvira(2005: 76)에서 중세의 *aún*이 척도 첨가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Desta bestia dizen los moros que tiene(n) alas e *aun* dizen que non es bestia mas spirito en semeiança de bestia (Estoria de España, I, 168v) todos fueron mouidos contra aquellos diez e tollieron los ende luego e *aun* diz la estoria que fueron iusticiados

(Estoria de España, I, 54v)

11) *aún*과 *todavía*는 스페인어에서 비교급 부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Las frecuencias mayores, que corresponden a longitudes de onda más cortas, incluyen la radiación ultravioleta, y las frecuencias *aún más* elevadas están asociadascon los rayos X. Las frecuencias menores, con longitudes de onda más altas, se denominan rayos infrarrojos, y las frecuencias *todavía más* bajas son características de las ondas deradio.

Guarnizo Franco *et al.*(2008 :54)

예문들은 모두 첨가적 해석을 가지며 여기에 사용된 부사 *aun, incluso, hasta*는 모두 척도부사(cf. RAE(2009: 3008))이며 이들로 이루어진 그 초점은 의미적으로 단계나 위계상 최극의 정도에 위치한다. RAE(2009: 3011)는 스페인어의 *todavía*가 대부분 스페인어권에서 초점의 부사로 쓰이며 이와 더불어 안데스 지역에서는 *incluso, encima, para colomo*와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한다.

- (19) a. *Todavía tiene la bondad de decirme que le da mucha alegría.*
b. *No fue brillante, pero por lo menos creó jugadas y todavía hizo un bonito gol de tiro libre.*

RAE(2009: 3011)

(19a,b)의 예문은 안데스 지역에서 *todavía*가 첨가적 의미를 갖는 요소로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15)에서 사용되는 *todavía* 역시 첨가적 의미를 가지므로 첨가의 해석을 갖는 접속사구인 [*encima de que*]와 호환성을 가지는 원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hasta que*]는 대부분 절이 묘사하는 상황의 시간적 종결점을 묘사하는 접속사구로 작용하므로 *aun*과 *incluso*와 더불어 *hasta*는 접속사 *que*와 함께 SAF로는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todavía que*에서 *todavía*가 갖는 척도 양보성

앞 절에서 우리는 안데스와 리버플레이트 지역의 스페인어에서 사용되는 [*todavía que*]는 *todavía*가 SAF의 부사로 기능하지만 이와 동일한 초점 부사의 기능을 갖는 *aun, incluso, hasta*는 첨가의 해석을 갖는 접속사구를 형성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Borreguero Zuloaga(2014)는 *incluso, aun, hasta*¹²⁾와 *todavía*를 스페인어의 SAF로 제시하면서 이 중 *todavía*를 동일

12) Borreguero Zuloaga(2014)는 초점의 부사 *hasta*를 전치사로 규정하지만 RAE(2014)는 *hasta*의 사전적 정의에서 *incluso*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 그 범주적 성격을 부사로 소개하고 있다.

hasta.

한 용법을 가지는 요소들 중 빈도상 가장 덜 출현하는 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오히려 안데스와 리버플레이트 지역에서는 [*todavía que*]의 구조에 참여하는 *todavía*가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그리고 이들 각 언어와 스페인어가 함께 사용되는 이중 언어의 영향으로 인해 여러 초점의 부사들 중 SAF의 기능을 갖는 양보의 접속사구는 [*todavía que*]가 최적의 표현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Forker(2016: 77)는 많은 언어에서 양보절은 초점 첨가사(focus particle)를 포함하며(cf. König(1988), König(1991: 2, 79-83), Haspelmath (2004)) 양보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 a. Standard concessive construction

Although S1, S2. = If S1 then normally not S2.

Although S1, not S2. = If S1 then normally S2.

b. Concessive conditionals

(i) scalar concessive conditionals of the type even if,

(ii) universal concessive conditionals of the type whatever

(iii) alternative concessive conditionals of the type whether or not.

Forker(2016: 77)

의미적인 측면에서 Forker는 ‘Although S1, S2.’의 경우 S1에서 묘사되는 상황은 S2에서 묘사되는 상황에 비호의적인 조건이므로 S1과 S2가 묘사하는 상황은 상호 배타적이며 이러한 상호 배타성은 대조의 의미를 유발한다고 본다. 이는 (15a)의 예문인 ‘*Todavía que llegas tarde, protestas.*’

Del ár. hisp. *ḥattá*, infl. por el lat. ad ista 'hasta eso'.

1. prep. Denota término o límite. *Hasta Caracas. Hasta mil. Hasta ti.*

2. adv. Incluso o aun. *Hasta tú estarías de acuerdo. Hasta cuando duerme habla.*

3. adv. C. Rica, El Salv., Guat., Hond., Méx. y Nic. No antes de. *Llegaré hasta las dos.*

본 연구는 *hasta*는 RAE(2014)의 견해에 따라 부사로 판단하며 이는 초점의 부사 *todavía*를 본 연구에서 부사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임을 밝힌다.

는, 비록 Forker의 기준에서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표준 양보절은 아니지만, S1이 묘사하는 ‘*llegar tarde*’와 S2가 묘사하는 ‘*protestar*’는 서로 상호 배타적이며 대조를 이루기에 충분한 양보성의 의미적 관계를 갖는다. 즉 (15a)는 표준 양보절의 기본적인 의미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SAF인 *todavía*가 사용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todavía que*]가 이끄는 양보구문은 부사절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지만 앞에서 제시한 (3)의 구문, 즉 아래의 (21)은 콜롬비아와 카리브지역 일부 국가에서 접속사 *que*가 없이도 첨가의 의미를 동반하는 양보성을 갖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21) *Todavía le pago el estudio y se queja.* (=3)

(21)은 등위 접속사 *y*가 사용된 구문으로, 양보성을 갖는 부사적 성격의 종속절과 주절로 구성되는 (15)의 예문들과는 구조적으로 성격이 다를 수 있다. RAE(2009)는 (21)의 예문 역시 종속 접속사를 사용하는 [*todavía que*]가 사용되는 첨가적 해석을 갖는 양보구문과 의미적으로 다르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21)은 어떻게 [*todavía que*]가 이끄는 구문처럼 양보성을 갖는 구문으로 사용되는 것일까?

Pavón Lucero(1999: 567)는 전치사, 부사 그리고 접속사는 전통적으로 첨사라는 하나의 동일한 메타범주(*metaclass*)에 속하는 요소들로 분류된다고 설명한다. Pavón Lucero는 기본적으로 이 세 요소는 불변화사이며 문장과 문장의 부분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참여하는 요소로 설명한다. 위 (21)에서는 SAF인 *todavía*가 등장하는 것은 (15)에서 드러내는 양보성과 관련된 특성과 동일하지만 문장의 유형에서 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15)의 경우는 종속절의 표지자인 접속사 *que*가 등장하는 경우이며 (21)의 경우는 *todavía*가 이끄는 문장 ‘*le pago el estudio*’가 종속절이 아니라 후행하는 문장인 ‘*se queja*’와 등위 접속사인 *y*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즉, (15)의 예문들은 [*Todavía que* + S1, S2]의 구조로써 종속 부사절 (S1)과 주절 (S2)의 관계를 갖는 구조라면, (21)의 [*Todavía* + S1 y S2]는 S1과 S2가 등위구조를 갖는 것으로 모두 SAF를 동반하는 양보성을 갖는 구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보성을 동반하는 척도와

첨가의 의미는 (21)에서 *todavía*가 갖고 있으므로 절을 이끄는 표지자는 접속사인 *y*로 실현되는 것이다. 척도 양보성과 첨가의 의미의 초점사인 *todavía*가 절의 표지자를 종속접속사로 구현하는 경우는 (15)의 [*Todavía que* + S1, S2]의 구조이며, 절의 표지자를 등위접속사로 구현하는 경우는 (21)과 같이 구현되는 것이다.

끝으로 *todavía*가 SAF로 기능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어원적인 측면에서도 그 근거를 살펴볼 수 있다. 스페인어 *todavía*는 일반적으로 라틴어 TOTA VIA에서 비롯되었으며(cf. Urrutia & Alvarez(2001: 26)) ‘en/por todo (el) camino’의 의미를 가진다(García de Diego(1985: 394))고 널리 알려져 있다. Márquez Guerrero(2006: 880)는 이러한 점에서 *todavía*가 ‘en todas las situaciones’이나 ‘en todo/cualquier caso’와 같이 전칭양화사의 해석, 즉 양화성과 관련된 특성을 언급한다. 즉 양보의 접속사구 [*todavía que*]는 어휘 *todavía*의 어원적 특성상 전칭양화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칭양화적 특성과 관련하여 Gil(2008)은 전칭양화사와 접속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다.

“Some semanticists have proposed deriving the interpretations of universal quantifiers from those of conjunctions. [중략] conjunctions are taken to include not only forms with meanings similar to that of *and*, but in addition expressions that are sometimes characterized as *conjunctive operators* or *focus particles*, with meanings resembling those of *also*, *even*, *another*, *again*, and in addition the restrictive *only*. As for universal quantifiers, these are assumed to encompass not only forms with meanings such as those of *every*, *each* and *all*, but also expressions that are sometimes referred to as free-choice...

Gil은 접속사와 첨가적 의미의 첨사를 전칭양화사의 범주에 동일하게 속하는 요소로 가정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주제인 SAF 기능의 접속사구 [*todavía que*]는 실제로 이 구조에 참여하는 *todavía*는 전칭양화사인 *todo*가 어원적으로 합성을 통해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todavía que*]에서 전칭양화사의 특성¹³⁾을 갖는 SAF의 접속사구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형태적으로는 *todavía*가 부사이지만 양보의 접속사구로 기능하는 [*todavía*

que]에서는 시간과 관련된 의미의 부사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전칭양화사의 특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는 Szabolcsi(2015)가 언급하는 양화첨사의 특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Szabolcsi는 여러 언어에서 양화사를 형성하는 첨사가 연결어, 첨가적 의미의 첨사, 척도의 첨사등으로 기능하는 요소들이 존재함을 주장하는데 이는 [*todavía que*]가 Szabolcsi가 언급하는 양화 첨사의 조건들에도 부합하는 특성임을 엿볼 수 있다.

IV. 맺는말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의 안데스와 리버플레이트 일부지역에서 사용되는 접속사구 [*todavía que*]가 척도성과 첨가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구로 기능함을 살펴보았다.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어인 케추아어와 아이마라어에서는 *todavía*에 해당하는 요소가 부사로 실현되지 않고 접미사 ‘-raq’과 ‘-raki’로 각각 실현되지만, ‘quechua-español’이나 ‘aimara-español’과 같은 이중 언어에서는 *todavía*가 접속사 *que*와 함께 척도 첨가 초점의 의미를 동반하는 양보 접속사구인 [*todavía que*]에 참여하는 구성소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안데스와 리버플레이트 지역에서는 *todavía*가 종속 접속사 *que*와 함께 사용되며 콜롬비아와 카리브지역 일부 국가에서는 등위접속사 *y*와도 실현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13) 앞에서 살펴본 RAE(2014)의 *todavía*에 대한 정의에서도 ‘5. adv. desus. siempre (|| en todo tiempo)’처럼 전칭양화사가 동반된 정의를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Aparicio, J.J., *Representación computacional de las perífrasis de fase: de la cognición a la computación*, Ph.D. Dissertation, Universidad de Barcelona, 2015
- Borreguero Zuloaga, M., “Focalizadores aditivos escalares y posición enunciativa: un estudio contrastivo italiano/español”, *Philologia Hispalensis* 28(3-4), 2014.
- Calvo Pérez, J., “Partículas y posposiciones temporales en castellano andino”, in M.A. Izquierdo, J.E. Rocher, and F.M. Teruel Gutiérrez(eds.), *Estudios de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en América y España*, Universitat de València, 1999.
- Cerrón-Palomino, R., “También, todavía y ya en el castellano andino”, *Signo & Señal* 6, 1996.
- Crevels, E.I. and P. Muysken, *Lenguas de Bolivia: Ámbito andino*, Plural editores, 2009.
- Cuervo, R.J., *Diccionario de construcción y régimen de la lengua castellana, vol. I*. Bogotá: Instituto Caro y Cuervo, 1886, reimp. 1953.
- Cusihuamán G.A., *Gramática quechua: Cuzco-Collao*, Lima: IEP, 1976.
- Elvira, J.(2005), “Metonimia y enriquecimiento pragmático: A propósito de aunque”, *Dicenda. Cuadernos de Filología Hispánica* 23, 2005.
- _____, “Algo más que palabras uso y significado en las locuciones del español”, *Verba hispanica* XV/b, 2007.
- Erdely, É, and C. Curcó, “Spanish “todavía”: Continuity and transition”, *Journal of Pragmatics* 91, 2016.
- Fernandez Lagunilla, M., “Las construcciones de gerundio”, in I. Bosque and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1999.
- Flamenco Garcia, L., “Las construcciones concesivas y adversativas”, in I. Bosque &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 española*, Madrid: Espasa, 1999.
- Forker, D., “Toward a typology for additive markers”, *Lingua* 180, 2016.
- García de Diego, V., *Diccionario etimológico español e hispánico*, 2nd. ed., Madrid: Espasa Calpe, 1985.
- Gil, D., “Conjunctions and universal quantifiers”, in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2008, <http://wals.info/feature/description/56>.
- Gómez Torrego, L., *Gramática didáctica del español*, Madrid: SM, 2007.
- Gómez Yáñez, M., C. Polo Quinteros and P. Urra Arraigada, *Seminario de Etnolingüística: Un estudio de tres lenguas Amerindias: Náhuatl, Quechua y Aimara*, Programa Cybertesis, 2006.
- Guarnizo Franco, A., P.N. Martínez Yepes and R.H. Villamizar Vargas, *Química General Práctica*, Elizcom, 2008.
- Haspelmath, M., *Indefinite Pronou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König, E., “Concessive connectives and concessive sentences: cross-linguistic regularities and pragmatic principles”, in J.A. Hawkins(ed.),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Oxford: Blackwell, 1988, 145-166.
- König, E., *The Meaning of Focus Particles: A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1991.
- Lastra de Suárez, Y., “Categorías posicionales en quechua y aymara”, in *Anales de Antropología VII*, México: UNAM, 1970.
- Márquez Guerrero, M., “Todavía: valores y usos en textos de los siglos XII-XVI”, in J.L. Girón Alconchel and J.J. de Bustos Tovar(eds.), *Actas del VI Congreso Internacional de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29 de septiembre- 3 octubre 2003) vol. 1*, Madrid: Arco/Libros, 2006.
- Merma Molina, G., *El contacto lingüístico en el español andino peruano: estudios pragmático-cognitivos*, Universidad de Alicante, 2008.
- Pavón Lucero, M.V., “Clases de partículas: preposición, conjunción y adverbio”, in I. Bosque and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1999.
- Pottier, B., “Problemas relativos a *aun*, *aunque*”, *Lingüística moderna y*

- filología hispánica*, Madrid: Gredos, 1968.
- Real Academia Española,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1973.
- _____,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2009.
- _____, *Ortografí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2010.
- _____,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La vigesimotercera edición*, 2014, <http://dle.rae.es/?w=diccionario>.
- Rivarola, J.L., *Las conjunciones concesivas en español medieval y clásico*, Tübinga: Max Niemeyer, 1976.
- Szabolcsi, A., "What do quantifier particles do?", *Linguistics and Philosophy* 38, 2015, 159-204.
- Urrutia, H. and M. Alvarez, *Esquema de morfosintaxis histórica del español*, Universidad de Deusto, 2001.
- Val Álvaro, J.F., "La composición", in I. Bosque &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1999, 4757-4841.

❖ ABSTRACT

The Concessive Conjunctive Phrase *todavía que* in Some Areas of Latin America

Kwak, Jae-Yong

In this paper, we present a morphosyntactic and semantic study of the concessive conjunctive phrase [*todavía que*] in the Andean and River Plate areas of Latin America. Real Academia Española(2009) describes that the adverb *todavía* occurs in a variety of focus-sensitive environments and specially, in the Andean and River Plate areas, the phrase [*todavía que*] participates in the concessive constructions and triggers an additive interpretation. It is well known that the Quechuan suffix ‘-raq’ and the Aymaran suffix ‘-raki’ have the meaning of *todavía* which is characterized as a additive particle. Due to the absence of the paratactic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ioned Spanish adverb and those indigenous suffixes, the adverb *todavía* in [*todavía que*] is used as a additive focalizer. We assume that these morpho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are derived from the language contact of Quechua-Spanish and Aymara Spanish. Based on this assumption, we will further assume that the etymological peculiarity of *todavía* as a universal quantifier is closely related to the reading of [*todavía que*] as a Scalar Additive Concessive Conjunctive Phrase.

Key Words : scalar additive focalizer, universal quantifier, concessive construction, suffix

■ 논문접수일 : 2017. 02. 10

■ 심사완료일 : 2017. 03. 01

■ 게재확정일 : 2017. 03. 03

